

‘베리테’ 소노마의 진실과 진가… 라뮤즈·라쥬아·르데지르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상상을 한 번 해보자.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포트를 최고의 메를로와 생테밀리옹 최고의 카베르네 프랑과 포이악 최고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섞어 와인을 만드는 꿈과도 같은 그런 상상 말이다.

보르도에선 불가능하지만 미국 소노마 카운티(이하 소노마)에선 가능하다. 신세계답게 와인양조에 제약이 없었고, 좋은 테루아가 다양성까지 갖췄다. 주요 평론가로부터 무려 26번이나 만점을 받은 소노마의 컬트와인 ‘베리테’다.

잭슨패밀리와인즈의 피에르 마리 마스터 소믈리에(사진)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베리테 와인은 소노마 테루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며 “퀄리티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는 것이 베리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터 소믈리에에는 마스터 소믈리에 협회(CMS)가 1969년 첫 시험을 주관한 이후 전 세계에서 단 275명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최고 등급의 소믈리에다. 잭슨패밀리에 속한 베리테가 한국에서 2015 빈티지를 출시하며 피에르 마리가



한국을 찾았다.

베리테는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자 했던 잭슨패밀리 창업주인 제시 잭슨이 프랑스 보르도의 천재 와인 메이커인 피에르 세이양을 영입하면서 탄생했다. 이들이 선택한 곳은 이미 명성을 얻기 시작한 나파밸리가 아니라 소노마였다.

베리테(Verite)는 프랑스어로 진실을 뜻한다. 포도 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소노마 테루아가 하는 말, 즉 진실을 온전히 와인에 담겠다는 의도다.

베리테의 포도밭은 알렉산더 밸리와



▲베리테 르데지르, 베리테 라뮤즈, 베리테 라쥬아.

◀피에르 마리 잭슨패밀리와인즈 마스터소믈리에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베리테의 라뮤즈, 라쥬아, 르데지르 2015 빈티지를 소개했다. /아영FBC

초크 힐, 나이츠 밸리, 베넷 밸리에 위치했다. 토양과 미세기후, 고도 등의 특성에 따라 50개가 넘는 마이크로 크뤼로 구분해 각각 개별적으로 포도를 수확하고 발효, 숙성된다. 피에르 세이양과 함께 와인 양조를 책임지고 있는 딸 엘렌 세이양은 각 구획의 와인을 모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 다음 라뮤즈와 라쥬아, 르데지르 가운데 어느 와인에 적합할지 판단을 내린다.

피에르 마리는 “매년 정해진 블렌딩 비율이 없이 수백 가지에 달하는 구성 요소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만으로 조

화롭게 설계해 양조한다”며 “전적으로 사람의 미각에 의존한다”고 전했다.

베리테의 출발점은 ‘라뮤즈’다. 소노마에서 최고의 메를로 와인, 단 하나만 만들겠다는 것이 잭슨의 의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1998년 첫 빈티지는 다른 이름이 없는 베리테로 출시됐다. 뮤즈(MUSE)가 보통 영감을 주는 원천인 것처럼 아름다움과 우아함, 정교함까지 와인 메이커로서 와인에 담고 싶었던 것을 모두 구현했다는 의미로 네이밍을 했다.

라뮤즈 2015는 메를로 90%에 카베르네 프랑 7%, 말백 3%를 블렌딩 했다. 메를로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탄닌이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생생한 산미가 향후 숙성 잠재력을 가능케 했다.

‘라쥬아’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주품종으로 한다. 블렌딩을 위해 재배한 카베르네 소비뇽인데 테이스팅을 해보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다. 큰 기쁨을 줬다고 해서 기쁨, 즐거움을 뜻하는 프랑스어 쥬아(JOIE)다.

라쥬아 2015는 카베르네 소비뇽의 비중이 75%다. 10년을 숙성했지만 여전히 젊고 밝은 색을 나타냈으며, 잘 익은 검은 과실과 허브향이 인상적이었다.

카베르네 프랑을 주품종으로 한 ‘르데지르’는 가장 마지막에 선보였다. 잭슨과 달리 카베르네 프랑에 애정을 가졌던 세이양의 바람에 갈망을 뜻하는 데지르(DESIR) 와인이 2000년에 첫

빈티지로 선보였다.

르데지르 2015는 카베르네 프랑의 비중이 64%다. 밝고 뚜렷한 아로마와 함께 단단한 구조감이 균형을 이뤘고, 허브와 미네랄 느낌이 잘 표현됐다.

베리테는 매년 양조한 와인의 최소 30%, 많게는 절반 가량을 셀러에 저장해 놓는다.

피에르 마리는 “좋은 와인은 숙성할수록 아로마도 풍부해지고 복잡미가 더해진다”며 “베리테는 이런 장점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건에서 숙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셀러에 저장했다가 출시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10년 묵힌 빈티지를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시음적기는 정해놓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미각에 따른 선택”이라며 “미국이 출시 초기의 신선하고 오크 풍미의 와인을 좋아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유럽과 같이 좀 더 잘 숙성돼 복잡미 있는 와인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와인 한 잔에서 영감(라뮤즈)을 떠올리고 싶은지, 아니면 기쁨과 환희(라쥬아)를 맛볼지. 기자의 선택은 갈망(르데지르)이다. 지천명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특히 맛보고 싶은 와인은 너무나 많으니 말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머신러닝 전문가가 말하는 ‘AI 실무 가이드’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는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에 AI 성공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IBM의 왓슨 개발에 참여했고, 빅테크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머신러닝 조직에서 AI 개발의 성공을 이끈 두 머신러닝 전문가다. 머신러닝은 컴퓨터에 학습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다.

성공적인 AI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홍보 문구에 넘어가 책을 집어든 독자에게 저자들은 구글의 최고경영자이자 과학자 케시 코지르코프의 말을 빌려 따끔한 충고를 날린다. “잘 알지 못하는 AI 방식을 밀어붙이려는 리더는 아마추어처럼 보일 뿐 아니라 결국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솔루션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문제를 찾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라. AI 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필요한 성과를 얻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진짜로 전사적인 AI 전



당신은 AI를 개발하게 된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알라시 심프슨 로크워거, 월슨 팅 지음
이윤진 옮김/세이지

환의 필요성을 느낀 기업가라면, 가장 먼저 ‘골디락스 문제’를 발굴하라고 책은 조언한다. 이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조건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를 뜻한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데스크는 수많은 고객 문의 사항 중 딱 하나,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이라는 골디락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에 AI를 도입해 성공한 기업으로 꼽힌다.

인바운드(고객이 건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일) 문의 가운데 비밀번호 재설

정 요청을 골라내는 일은 자연어 처리에 적합한 작업이었다. “로그인이 안 돼요”, “비밀번호 재설정이 어려워요” 등과 같이 사람들이 대개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오토데스크는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을 인식하는 모델을 구축해 비밀번호를 새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1.5일에서 10~15분으로 단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졌고 처리 범위도 확장됐다. 오토데스크는 활성화 코드 요청에서 주소 변경, 계약 문제, 기술 문제 등 60가지 사용 사례를 인식하는 AI 모델을 만들 어냈다. 이러한 솔루션 덕분에 오토데스크는 고객 문의를 최대 99%까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책은 “처음 불거진 단순한 문제를 AI로 해소하고 이 가능성을 파악한다면 이후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자원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기 전 “머신러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규모와 영향력을 지닌 문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광장의 문화정치

정원옥 외 14인 지음/동연



다. 시민과 광장을 잇는 매개자이자 사회운동의 주체인 활동가들은 오늘의 광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이번 탄핵광

장에서 처음 등장했거나 주목할 만한 문화적 현상과 실천을 채집했다. ‘탄핵위키’가 바로 그것.

책에는 공동연구 성과 외에도 문화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글 8편이 함께 실렸다. 이 중 6편은 탄핵광장의 문화정치를 분석한 논문이고, 나머지 2편은 극우 대중의 부상을 다룬 글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시도와 쿠데타 모의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 했다. 시민들은 이에 맞서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 운동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썼다.

탄핵광장은 물리적으로 단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문화적 실천과 연대의 정치는 이후 세계를 상상하고 열어가게 출발점이 됐다. 광장의 기억을 통해 연대와 문화적 실천의 힘을 일깨워주는 책. 480쪽. 2만7000원. /김현정 기자



▲문체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스포츠 상품권 70만장 배포
▲‘무패의 사나이’ 한화 폰세, 대기록 향해 질주… 최다 14연승 정조준 /사진 뉴시스

▲오타니, 엉덩이 경련 증세로 강판…3이닝 2실점·5타수 무안타
▲손흥민, MLS 이적 대신 토트넘에 남나…“1년 계약 연장 가능성”

▲인니 축구팬, U-23 우승 실패에 분노…“신태용 감독 복귀시켜라”
▲세계육상연맹, 여자 선수 유전자 검사 의무화…통과 시에만 출전